



코스피	2962.09 (-10.39)	코스닥	983.25 (-8.08)
금리 (연평균)	1.953 (-0.045)	환율 (원/달러)	1187.50 (-3.00)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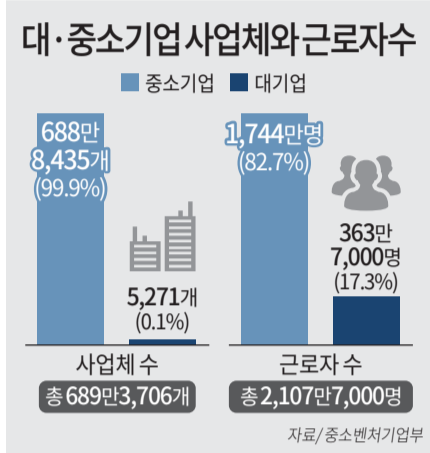
[뉴스]  
오스템임플란트  
대출만기연장 불가  
회장 경영권도 후청  
02

### m-커버스토리

# 산업계 염원 '공정경제' 첫 단추는 양극화 해소

### 한 대선 후보가 겪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

#. "1995년에 창업했다. 당시엔 벤처라는 말도 없던 시절이었다. 장사하면서 물건파는게 제일 어려운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제일 힘든 건 물건파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었다. 대기업 납품이 대부분이었다. 규모가 작다보니 부장 전결로도 돈을 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납품 뒤) 6개월이 돼도 대금을 안주더라. (대기업) 부장 집앞에서 뺨치기를 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부장 소매끝을 잡고 돈을 달라고 했다. (부장이) 동네 부끄러우니 다음 날 회사로 오라고 했다. 이튿날 대기업으로 찾아갔더니 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줬다. (어음이라도) 1년안에 받으면 빠른 것 아니냐. 하지만 난 직원을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가서 '어음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자율만 10%였다. (당시) 어음깡을 하면 시중금리의 두 배 배를 댔다. 절반정도 뜯기다보니 피눈물이 났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9983', 전체 기업체의 99.9%, 총 종사자의 82.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한번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앞서 각 당에 전달한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안'에서 "2년간의 코로나 대응행으로 매출이 감소해 문을 닫거나 빚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호소드린다.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단협은 특히 "더 이상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이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며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를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고, 대통령 당선시엔 국정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500곳을 대상으로 한 중기중앙회의 지난해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3.8%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반면 양극화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0.4%에 그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라면서 "양극화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공정해야 해결될 수 있고, 상생의 문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행사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안, 납품대금 못받던 씁쓸한 경험 산업계 갑·을 관계속 양극화 심화 20대 대선, '공정 생태계' 화두로

20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달 초 200명이 훌쩍 넘는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담담하게 전한 자신의 사업 초기 에피소드다.

제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돈 등 대가를 받아야 하는 원청·하청 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뼈들어진 관행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업가 출신 후보에게도 잊을 수 없는 씁쓸한 경험이 됐다.

출발선도 다르다. 따라가기도 벅하다. '갑과 을'이 분명하다보니 '을'은 연명하는 것조차 벅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큰 중소기업과 작은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운동장은 기울어진지 오래다. 불공정은 곳곳에 만연해 있다. 그러다보니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에 따라 대선이 채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 경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물론 2017년 당시의 19대 대선 때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5년만의 대자부다.

# 버거·치킨 이어 주류까지... 먹거리 줄인상

원재료값 맞춰 가격 인상 불가피 맥주 2.49% 등 4월부터 주세 인상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먹거리 물가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햄버거, 치킨, 커피에 이어 주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와 동서식품이 커피 가격을 올린 가운데, 한끼 대용식 햄버거와 치킨 가격도 올랐다.

버거킹은 지난 7일부터 25종 버거류를 포함한 총 33종 제품을 평균 2.9% 인상했다. 앞서 롯데리아의 경우 지난달 제품 가격을 평균 4.1% 인상했다. 맘스터치와 맥도날드는

아직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내 부적으로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치킨의 주요 제품 해바라기 후라이드는 지난달 기준 1만5000원에서 2000원을, 교촌치킨의 대표 제품인 교촌오리지날은 지난해 11월 1만5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했다. 유일하게 BBQ만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업계는 원·부자재료가 크게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가중, 코로나19 여파와 물류대란 등이 먹거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주류 업계도 비상이다. 주요 주류 회사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내

놓진 않았지만 원재료 물가 및 주세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

과세당국은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를 각각 2.49%, 2.38%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1)당 20.8원, 1원씩 오른다.

맥주·탁주는 1969년 주세법 개정 이후 50년간 제조단가 기준의 '종가세'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생산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뀌었다. 수입 맥주가 국산 대비 저렴한 현상을 해소하고, 소규모 양조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 인천공항 도착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구매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13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도착하고 있다. 이날 도착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총 물량 76만2천명분 중 우선 2만1천명분이 도착한 것으로 이날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날 도입분은 14일부터 바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될 예정이다. /뉴스

# 삼바, 4공장 10월 가동... CMO 경쟁력 강화

(위탁생산)

존 림 대표, 사업방향 비전 공개 멀티모달 5공장도 상반기 첫 삽

삼삼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유전자와 세포 치료제 생산이 가능한 5공장도 올해 상반기 첫 삽을 뜬다. 삼삼바이오는 위탁생산(CMO)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 확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존 림 삼삼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13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2022년 사업 방향과 비전을 공개했다.

존 림 대표는 "4공장은 2023년 1

분기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6개월 앞당길 올해 10월부터 6만리터를 먼저 가동할 계획이며 2023년에 전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대형 제약사 3곳으로부터 5개 제품을 수주했고 현재 20개 제약사와 30개 제품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사들이 4년 이상 걸리는 공장 건축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 건축과 가동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가진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25만6000리터)이 완공되면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총 62만리터의

생산능력을 보유,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이란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와 함께 삼삼바이오로직스는 5공장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5공장은 현재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mRNA를 비롯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멀티모달 형식으로 지어진다.

이를 기반으로 항체의약품 중심의 현 사업 포트폴리오를 mRNA, pDNA, 바이탈벡터 등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세포치료제로 본격 확대한다.

<8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오늘 오미크론 대응 방역대책·거리두기 발표  
▲ 광주 아파트 붕괴 '생선가시처럼 드러난 철근이 스모킹 건' /사진 뉴스

▲ 당국 "4차 접종 대비하되 3차 접종에 집중"  
▲ 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관련 '열람·등사 거부' 공수처에 행정소송



▲ 이재명·윤석열, 설 연휴 전 지상파 합동 TV토론 합의 /사진 뉴스  
▲ 소방관 3명 순직 화재 '합동조사단' 가동